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플레이 볼' KCC-현대모비스 선두경쟁 격돌

코로나19 여파로 10개 구단 국내 훈련 돌입 신세계에 매각된 SK는 서귀포에서 담금질

“한국에서 동계 훈련하는 것은 프로 14년 만에 처음이네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장 나지완이 1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시즌 스프링캠프 첫날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나지완의 캠프 첫날 훈련 장소는 지하 주차장이었다.

새벽에 광주 지역에 내린 비로 그라운드 짙은 탓에 선수들은 지하 주차장을 돌며 뛰어야 했다. 나지완은 “지하 주차장에서 러닝 훈련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1일 2021시즌을 준비하는 스프링캠프에 돌입했다. 말은 스프링캠프지만, 한국의 2월은 운동하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작년까지 구단들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좀 더 기후가 따뜻하고 훈련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전지 훈련을 떠났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남부지방에 연고지가 있는 KIA와 NC 다이노스(창원), 롯데 자이언츠(부산), 삼성 라이온즈(대구)는 각각 홈구장에 캠프를 차렸다.

kt wiz는 수원을 떠나 부산 기장역, 한화 이글스는 대전을 떠나 경남 거제에서 캠프를 열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로 매각되는 SK 와이번스는 제주도에서 훈련한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돔구장을 쓰는 키움 히어로즈는 서울에 남았다.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는 경기도 이전에 있는 2군 시설에서 캠프를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스프링 캠프 첫날, 추위보다는 비가 선수들을 괴롭혔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소식이 예보됐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날씨와 운동장 사정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며칠 전 광주에 눈이 많이 와서 훈련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며 캠프 초반에는 스트레칭 위주로 가볍게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C는 이날 마산구장 그라운드 훈련할 예정이었지만, 비가 내린 아침에는 창원 NC파크와 마산구장의 실내 시설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들은 오전 10시 이후에야 마산구장 야외로 나와 정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

NC 나성범은 “미국이 아니라 여기서 캠프를 해서 다를 수 있다”면서도 “날씨 변수로 변화는 있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SK 선수들은 날씨 문제로 서귀포 강창학 야구장 실내 훈련장에서 가벼운 컨디셔닝 훈련을 소화했다.

구단이 신세계그룹에 매각된 테라 선수들은 이번 캠프까지만 SK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 그러나 선수들은 동요하는 기색 없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2021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삼성·SK 6강 진출 '총력전'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1위 전주 KCC와 2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정면 대결을 벌인다. 25승 10패로 선두인 KCC는 4월 2일 울산 현대모비스(21승 14패)와 울산에서 맞붙는다. 두 팀의 승차는 4경기로 이번 맞대결에서 KCC가 이기면 5경기 차로 달아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현대모비스가 승리할 경우 3경기로 좁히면서 선두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팀당 1명씩 국가대표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KCC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1차전에서는 현대모비스가 95-65, 무려 30점 차로 이겼지만 이후 2, 3라운드에서는 KCC가 승리를 가져갔다.

특히 1월 2일에 열린 3라운드 대결에서는 KCC가 전반 한때 16점이나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어 이겼다.

두 팀은 연승을 달리다가 최근 연승이 끊긴 공통점이 있다. KCC는 12연승을 이어가다 1월 24일 서울 SK에 달미를 잡혔고, 7연승 중이던 현대모

비스도 1월 31일 역시 SK에 졌다.

KCC는 SK전 패배 이후 원주 DB에도 제 2연패를 당했다가 지난 주말 고양 오리온, 안양 KGC인삼공사를 연파하며 되살아났다.

현대모비스 역시 KCC와 홈 경기까지 지면 2연패를 당해 선두 추격은커녕 2위 자리마저 불안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

7, 8위를 달리는 서울 연고 팀 삼성과 SK의 6강 추격 여부도 관심이다. 이번 주 삼성은 9위 창원 LG를 상대하고, SK는 6위 전자랜드 전에 이어 5위 부산 kt와 맞대결이 이어져 꼭 이겨야 하는 일이다.



SK 와이번스 '마지막 스프링 캠프' 신세계그룹 이마트로 매각되는 프로야구 KBO리그 SK 와이번스 선수단이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구장에 '마지막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우천 문제로 인해 서귀포 강창학 야구장 실내 훈련장에서 가벼운 컨디셔닝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SK 구단은 지난 23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3월 중순부터 새구단명으로 활동하게 된다.



집중하는 김형곤 1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 방송센터에서 개최된 '2020-2021신한금융투자 PBA 투어' 개막 경기에서 SK렌트카 김형곤 선수가 경기하고 있다.

'악동' 패트릭 리드 PGA투어 통산 9승

3R 규정위반 논란에도 우승 임성재는 공동 32위 마무리

패트릭 리드(31·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 스스폰(총상금 7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리드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남코스(파72·759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리드는 공동 2위 선수들을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우승 상금 135만달러(약 15억원)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은 리드는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23)가 3언더파 285타로 공동 32위에 올랐다.

8번 홀까지 5타를 줄이며 맹렬한 기세로 선두권을 위협했지만 9번 홀(파5) 버디퍼트를 놓치고, 10번 홀(파4)에서는 보기가 나오며 상승세가 꺾였다. 이후로는 11, 13번 홀에서 보기, 12, 15번 홀에서는 더블보기로 타수를 계속 잃었다.

최경주(51)는 4오버파 292타로 공동 69위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브랜드화 지원

지자체 개최 대회 22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가 '2021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온라인) 대회를 포함한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1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13개 시도에서 31개 대회의 개최 신청이 들어왔다”라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22개 대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항목으로 지역·종목 연계협력, 사후 활용방안,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라며 “비대면(온라인) 국제대회는 서류 심사에서 가산점(5점)을 부여해 총 5개의 비대면(온라인) 국제대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10억원 미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선 '2021 국제사격연맹(ISSF) 창원 월드컵 사격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은 지역과 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대회로 뽑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대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국제대회도 선정됐다.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의 선수가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GPS)를 착용해 풀코스, 반구간 등을 달린 뒤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비대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것은 국제대회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전북협회 회장



오 동 진

제주특별자치도전북협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정 사우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18대 회장



안 창 준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18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외도동협의회 회장 윤태선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시 애월읍 주민자치위원장



강 종 우
(부: 故 강중현 · 모: 양을생)

제주시 애월읍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흙사랑모임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한민국농업대상 농업인분야 우수상



이 석 근

대한민국농업대상 농업인분야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제4기 졸업
감골1전공 김연수 감골2전공 강우방
감골3전공 전기우 한우전공 고성영
키위전공 최근식 양돈전공 김명신
친환경전공 이석근